

2021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국제공동제작) 사업 비다큐멘터리 부문 발표평가 종합의견

코로나 19로 인해 추진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1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국제공동제작)사업에 지원 신청한 작품들이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제공동제작의 대상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며 향후 보다 다양한 국가와의 공동제작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기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보다 독창적이고 신선한 프로그램이 보다 많이 기획되어 각국의 문화교류를 위한 공동제작사업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